

■ 괴운(槐雲) 칼럼



선유자익(善遊者溺)과 우생마사(牛生馬死)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선유자익(善遊者溺)과 우생마사(牛生馬死)의 사자성어(四字成語)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선유자익(善遊者溺)은 해엄 잘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로, 뛰어난 재주만 믿고 자만하다가 도리어 재앙을 당함을 비유하는 말로 화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 나오는 말이다.

초보자는 어떤 일이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운전도 배워 1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진다.

이럴 때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한다. ‘해엄 잘 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우리 속담과 맞아 떨어진다.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 해엄 잘 치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믿는 나머지 물에 빠질 수가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 실력이 늘어날수록 겸손하라는 가르침의 메시지를 지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공한 순간 곧 망심한다는 것이다. 잘하기 때문에 자만하여 실패하는 것이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선유자의 선기자타(善遊者溺 善

騎者墮)라는 사자성어가 그냥 흘러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이 교훈과 비슷한 우생마사(牛生馬死)가 있다. ‘소와 말이 함께 물에 빠졌을 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고사인데, 물이 잔잔한 호수에 말과 소를 각각 넣으면 모두 해엄쳐 나온다. 그러나 홍수가 저서 세차게 흐르는 물에 소와 말이 빠지면 소는 살아나는데 말은 결국 죽는다. 왜 해엄에 서툰 소는 살고 해엄 잘 치는 말은 죽을까? 소는 스스로 해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을 거스르지 않고 천천히 떠밀려 내려가 땅을 밟을 수 있어서 산다. 그러나 말은 해엄에 자신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온 힘을 다해 해엄을 치다가 지쳐서 결국은 죽는다.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로는 마음을 비웠다. 나는 욕심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 결국 그 욕망이 욕심이 되어 어렵게 얻은 벼슬자리에서 떨어져 추풍낙엽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내려놓을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던가. 저 넓은 바다에서 해엄치며 노니는 물고기들도 더 크고 좋은 먹이를 먹으려다가 결국 낚시에 걸리지 않는가? 우리 안동 권문들도 과욕을 버리고 말은 입무를 묵묵히 실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권무일 작가,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 출간

권무일 작가는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라. 세계를 향하는 대한민국의 출구가 어디인가?를 묻는다.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장차 제주도가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슬픈 역사와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를 지향해 가리라 믿으며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를 출간했다. 부제는 “일본의 조선 식민화 과정과 제주도민의 저항, 1876~1905”이다.

저자는 1942년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포스코, 현대그룹 등에서 30년 넘게 산업의 역군으로 일했다. 저자는 2004년 제주에 정착했다. 소설가이자 역사 평론가이며 수필가인 그에게 제주도의 독특한 역사가 포착되었다. 그 뒤 그는 ‘의녀 김만덕’(2009), 「말, 현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2012) 등의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 역사는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었다. 일본의 조선 식민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제주도민이 바다를 빼앗기고 자존심까지 무개지는 슬픈 역사였다. 그래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자료를 읽기 위해 2021년 80세의 나이로 제주한라대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기초부터 배우야만 했다.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는 일본이 제주 바다를 어떻게 침탈하고 황폐화시켰는지 또 일본의 조선 식민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저질렀던 횡포와 제주도민들의 저항 등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긴 제주도의 슬픈 역사의 기록이다.

저자는 “조선의 위정자들은 바다를 모르고 도외시켰기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사정도 몰랐다. 일본이 조선을 넘보고

군사를 양성하고 전함을 만들고 있는데 조선의 관리들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조야가 혹독한 참화를 맞아 강도가 분탕질 당했음에도 조선의 왕과 대신들은 싸움질만 하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을 먹고자 군침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조선의 관리들은 씩은 대로 써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정한론으로 시끌시끌했는데 조선의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에는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강화도조약 제1관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하략)

조일통상장정 제41관은 일본국 어선이 조선국의 전라, 경상, 강원, 함경 4도 해빈(海濱)에서, 조선국 어선이 일본국의 하젠(肥前), 지쿠젠(筑), 이와미(石見), 나가도(長門, 조선 해안과 면한 곳), 이즈모(出雲), 쓰시마(對馬) 해빈에 왕래하면서 포어(捕魚, 고기를 잡는 것)함을 승인한다. (하략)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님을 명시하고, 조일통상장정으로 조선이 배타적인 영토주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일본 어민이 조선 바다로의 침투를 일방적으로 가능케 하였고 이로 인해 바다를 일본에게 내준 어리석고 어이없는 조약이 되고 말았다.

권현완 편집국장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금오신화(金鰲新話)』에서 ‘의(義)’를 찾다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맹자(孟子)는 인간의 본성인 사단(四端) 중에서 ‘의(義)’를 ‘수오지심(羞惡之心)’, 즉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의로움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양심’을 따르는 것이리라. 시인 윤희주도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한국사회는 이런 ‘의로움’을 판가름하는 무대가 되었다. 12.3 비상계엄(혹은 내란)으로부터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쳐 결국 6.3 대선을 치르기가 지 수많은 사건과 논란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의로움이 무엇인 지일 것이다. 그 실마리를 풀어줄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1435~1493)의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보자.

“내 평생 뭉친 가슴을 쓸어 없애 주리라”

최초의 소설이라는 『금오신화』는 단편소설집인데, <만복사저포기(萬福寺袴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등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들은 ‘세조정변(世祖政變)’ 후 10년을 떠돌면서 그의 발길이 주로 머물렀던 개성, 평양, 남원, 경주 등 국내의 유서 깊은 도읍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방식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전기소설(傳奇小說)’로 이루어져 있다. 과연 김시습은 이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김시습이 그렇듯이 뛰어난 제주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인정받거나 쓰이지 못했던 불우한 인물들이다. 게다가 하나같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다. 그러기에 생육신(生六臣)으로 평생을 떠돌았던 김시습 자신의 분신처럼 보인다. 7년 동안 경주 금오산에 틀어박혀 김시습이 했던 중요한 과제는 세조정변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저항하며 소설을 쓰는 일이었다. 왜구나 홍건적의 칼날 아래 여주인공이 처참하게 살해됐듯이 김시습에게 세조정변도 그랬으리라.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 거대한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능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소설 속에서는 죽은 여주인공을 다시 살려내 여기에 맞서도록 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비현실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김시습에게 소설을 쓴다고 하는 일은 세계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하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전기소설의 전범이 되는 명나라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傳燈新話)』를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세조정변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겠다고 여겨 전기소설의 특징인 판타지(Fantasy) 방식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전등신화』를 읽고 쓴 시 <전등신화 뒤에 쓰다(題剪燈新話後)>에서 “말이 세상교화에 관계되면 괴이해도 무방하고[語關世教怪不妨]/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쁘니라[事涉感人誕可喜]”고 했다. 세상을 깨우치고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라도 좋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소설의 특징은 바로 이런 환상성과 낭만성인데 부당한 현실의 횡포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런 전기의 양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해서 『전등신화』를 읽고 나서 그 감격을 “내 평생 뭉친 가슴을 쓸어 없애 주리라” 했다.



“절의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5편 중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죽은 여자 귀신과 사랑을 나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생규장전>이다. 태화에 다니는 이생과 젊고 아름다운 최랑이 서로 눈이 마주쳐 사랑하게 되고, 밤마다 이생은 최랑 집의 담장을 넘어와 사랑을 나누지만, 부모에게 밤늦게 나타나는 일이 발각돼 울주(蔚州)로 쫓겨 가는 바람에 서로 떨어져야 했다. 최랑이 상사병으로 몸져눅게 되자 사실을 알아차린 최랑의 부모는 어렵사리 이들을 혼인시키고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홍건적이 침입하여 강간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던 최랑은 목숨을 잃지만 전쟁이 끝나고 혼귀(魂鬼)가 되어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나 몇 년 동안 부부로서 같이 산다. 그 뒤 최랑의 혼귀는 저승으로 가고 이생은 아내를 그리워하다 몇 달 뒤에 병으로 죽는다.

여기서 여주인공 최랑이 홍건적에게 저항하다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은 분명 세조정변에 대한 알레고리(allegory)다. 그러기에 여주인공은 무엇보다도 ‘정절’을 중요시 한다. 죽은 최씨의 혼령이 이생 앞에 나타나 “끝내 짐승 같은 놈들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진혼방에서 몸이 찢겨지

는 길을 취했습니다.”라며 “절의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義重命輕]”고 강조했던 것이다. 왜 ‘절의’가 문제가 되는가? 바로 당시의 대의명분이고 평생을 방외인(方外人)으로 떠돌았던 김시습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건적에게 희생된 여인을 귀신으로 살려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여귀가 되어 세상으로 귀환한 아내를 어찌할 것인가? 그림에도 남주인공은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 죽은 여주인공이 ‘제 환신도 이승에 되돌아와서 남은 인연을 거듭 맺으려’한다며 “그대께서는 허락하시겠습니까?”하자 이생은 “그것이 애당초 내 소원이요.”하고 흔쾌히 받아들인다.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할까?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몇 년 동안 이어간다. 놀라운 건 “몸은 비록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었지만, 잠자리의 즐거움은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집 밖의 일은 일체 참견하지 않았고, 집안의 대소사에도 전혀 찾아가지 않고,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겁게 세월을 보냈다.”한다. 이생에게는 귀신이 된 아내가 세상의 전부였던 셈이다.

<다음호에계속>

서울지역중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선·정릉은 조선의 제9대 성종대왕과 제11대 중종대왕릉이 있는 유서 깊은 유적지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11시

♣ 장 소 : 서울 강남구 선·정릉

♣ 집결지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

♣연락처: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중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51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51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7월 20일(일) 10시(시간엄수)

♣ 집합장소 :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 산 행 지 : 송추계곡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추신: 송추계곡 입구 짜장면 집 앞으로 오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